

혼례유물에 대한 내용분석

A Content Analysis of Traditional Wedding Artifacts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강사 최배영*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

Lecturer: Choi, Bea-Young

〈Abstract〉

This paper will provide a basic analysis of traditional wedding artifacts as they appear on museum websites and their value for scientific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re were a total of 115 wedding artifacts(72 written documents related to weddings, 43 marital items) on the website of a museum. Most of them were related to the latter half of Cho-sun Dynasty. From these artifacts, we may understand the culture surrounding wedding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from the Cho-sun Dynasty to modern time.
2. By analyzing such wedding artifacts, we can supplement existing methods of study such as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histories. In this way, we may better understand the history and culture of weddings.
3. In order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of weddings we need to adopt a more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wedding artifacts.

▲주요어(Key Words) : 혼례유물(traditional wedding artifacts),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혼례서식(written documents related to weddings), 혼례용품(marital items)

1. 서론

한국의 혼례는 한 개인의 통과의례로서, 새로운 가정의 성립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기초 구성단위 형성의 계기로서 오래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유교를 윤리의 기반으로 삼아 가정형성에 중요성을 강조했던 조선시대에는 혼례의 규범을 담은 예서(禮書)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저술되었으며 혼인절차 하나하나에 소요되는 혼례서식이나 용품 마련에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록들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화기 이후 근대화, 산업화, 서구화의 물결로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주의, 자유주의, 서구주의 등의 사조가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는 개인의 의식구조를 비롯하여 물질생활, 사회관계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가정도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심한 변화가 야기(이정우·김명나, 1990)되었으며,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로 일컬어져왔던 혼례는 혼인예식을 비롯하여 혼례용품 대다수의 시장상품화가 이루어졌다.

이 같은 변화가 생겨난 지 100여년의 시간이 흐른 현 시점에서 그간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과거 우리 혼례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의미 파악은 외면한 채 외래의 혼례문화와 한데 뒤섞여버린 마치 혼례 전시장과 같은 다중구조(박혜인, 1990)로 일관되어 왔다.

전통에 든든한 뿌리를 둔 미풍양속으로서 혼례준비에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혼례가 사치보다는 검소함으로 무엇보다 부부의 화합, 건강한 자녀출산, 효(孝)와 경(敬)의 자세에 의미를 두며, 나아가 혼인당사자들을 둘러싼 모든 이들이 그 가정의 영원한 복을 기원(이길표·최배영, 2000)했던 한국적 혼례문화의 요소들은 하나둘씩 잊혀져가고 있다. 그 결과 외형이나 형식만으로 과대 포장을 일삼는 체면주의, 물질만능주의, 상업주의에 편승된 혼례가 사회문제로 돌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본

* 주저자: 최배영 (E-mail : kb9112@hanmail.net)

래 우리의 혼례문화가 지녔던 긍정적 모습들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 같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듯 2002년을 기점으로 오늘의 삶에 토대가 되어야 할 우리 것에 대한 정립 측면에서 문화의 원형을 찾고자 하는 문화관광부(2003)를 비롯한 각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규범적 혼례관을 지녔던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혼례문화의 원형을 재유미하는 연구는 시의성(時宜性)을 지닌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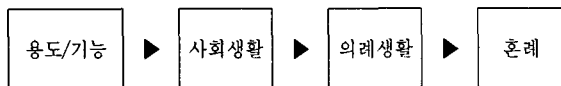
그러나 그간 가정학에서는 조선시대 예서에 나타난 혼례의 내용 고찰 내지는 몇몇 지역 노년 여성들에의 면접을 통한 사례조사로 조선후기 이후의 혼례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력해왔을 뿐 사실상 혼례문화 원형 찾기에 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될 박물관 혼례유물에의 분석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박물관에 현존하는 혼례유물을 살펴보는 것은 조선시대에서 근·현대로 접어드는 조선후기의 혼례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과 동시에 문헌 및 사례 연구방법과의 상호보완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후기 혼례의 전반적인 절차와 혼례유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혼례유물을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학술자료로서의 가치를 규명하여 혼례문화원형의 정리 작업에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3년 1월부터 2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 종합정보안내 포털사이트 (<http://www.korea-museum.go.kr>) 검색을 실시하여 혼례관련유물들을 조사하였다. 조사범위는 유물통합검색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44개 박물관의 소장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유물통합검색사이트에서 유물을 검색하는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유물의 용도/기능분류에 의거하여 사회생활 가운데 의례생활로서의 혼례에 초점을 맞추어 유물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림 1> 유물통합검색상의 디렉토리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유물의 용도/기능분류에 의거하여 의례생활 영역에서 혼례 관련 유물을 조사하였으므로 의생활 영역으로 검색되는 혼례복식에 대한 분석은 제외시켰다. 둘째, 박물관에서 구축해놓은 인터넷 사이트상의 혼례유물들만을 조사하였으므로 인터넷에 나타나지 않은 각 박물관의 전체 소장 유물들을 다루지 못했음도 제한점으로 밝혀둔다.

2. 검색 사이트를 통한 박물관 개관

인터넷 검색을 실시한 결과 44개 박물관 가운데 혼례관련유물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 9개 박물관 사이트가 선별되었다(<표 1>). 이들 사이트는 국립박물관 2개, 공립박물관 4개, 사립박물관 1개, 대학박물관 2개로 나타났다. 1945년에 설립된 2개의 국립박물관들을 제외하고 다른 박물관들은 1970년대 말 이후 개관된 것이다.

<표 1> 관련 인터넷 사이트

박물관명	인터넷 사이트	성격	소재지	박물관 개관년도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국립	서울시 종로구	1945년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	국립	서울시 종로구	1945년
서울시립역사박물관	http://museum.seoul.kr	공립	서울시 종로구	2002년
경기도박물관	http://www.musenet.or.kr	공립	경기도 용인시	1996년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http://ojukheon.or.kr	공립	강원도 강릉시	1992년
안동시립민속박물관	http://adfm.or.kr	공립	경북 안동시	1992년
온양민속박물관	http://www.onyangmuseum.or.kr	사립	충남 아산시	1978년
강원대박물관	http://museum.kangwon.ac.kr	대학	강원도 춘천시	1979년
전주대박물관	http://museum.jeonju.ac.kr	대학	전북 전주시	1985년



<그림 2> 혼례유물 소장 박물관 (단위:점)

박물관의 소재지로는 서울의 종로구에 3개의 국·공립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강원도에 2개의 박물관, 그리고 경기·충남·전북·경북에 각각 1개씩의 박물관이 위치해있다(<그림 2>). 9개 박물관 사이트 상에는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한 영상자료(이미지)와 텍스트자료(유물명칭, 국적/시대, 재질, 크기, 용도/기능, 소장기관, 유물번호)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약 1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진 유물분류표준화 작업(박인원, 2002)에 의한 결과로 계속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각 박물관 사이트에서 검색된 박물관 소장 혼례유물의 수량은 총 115점(<표 2>)이었다. 이중 경기도박물관 53점, 온양민속박물관 21점, 국립민속박물관 16점, 전주대박물관 13점, 서울시립역사박물관·안동시립민속박물관·강원대박물관이 각각 3점, 국립중앙박물관 2점, 강릉시립박물관 1점으로 조사되었다. 박물관별로 혼례유물자료를 정리해보면 혼례서식의 경우 경기도 박물관이 많은 다양한 서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혼례용품의 경우에는 온양민속박물관이 17점, 국립민속박물관이 9점으로 나타나 우리 민족의 생활사를 담고 있는 민속박물관으로서 특징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그 외 강원대박물관과 전주대박물관 등 지방대학박물관의 혼례유물에 대한 수집 노력의 일면도 확인할 수 있었다.

III. 조선후기의 혼례절차와 혼례유물에 대한 선행연구

박물관 혼례유물의 내용분석에 앞서 조선후기의 전반적인 혼례절차와 혼례유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혜인(1991)은 문헌자료와 현지조사를 토대로 조선시대 혼례의 실제적인 관행을 분석하였으며, 황경애(1994)는 혼례행례의 변천 연구에서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시기의 혼례절차와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길표·최매영(2000)은 의례서 분석과 더불어 생존

해있는 반가(班家)의 여성들에 대한 사례조사를 병행하여 조선후기의 혼례상을 논하였다. 이들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혼례절차를 혼례식 전·혼례식·혼례식 후로 구분(<표 3>)하고, 관련 혼례유물을 살펴보았다.

1. 혼례식 전

혼례식 전의 절차로 약혼(約婚) 내지는 정혼(定婚)의 의미에서 신랑의 사주(四柱) 즉 사주단자와 청혼서를 신부집으로 보내고, 사주를 받은 신부집에서는 혼인날을 택일하여 연길(涓吉)과 허혼서를 신랑집으로 보냈다. 다산(1762~1836)은 연길의 절차에 대해 “우리나라 풍속에 신부집에서 혼인날을 정하는 것은 신부집에서 혼인의 예를 행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렇듯 혼인날이 정해지면 신랑집에서는 신부집으로 납폐(納幣) 즉 함을 보내는 예를 행하였다. 함에는 혼서와 청색·홍색 채단 이외에 물묵, 황낭, 마분향(혹은 부용향) 등을 넣어 보냈다.

함을 받은 신부집에서는 대추와 밤을 가운데 박아서 썬 봉치떡 시루를 소반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함을 받았다.

이들 혼례에 쓰이는 서식들에는 각기 보(襟)가 마련되었다. 사주보는 홍색 겹보나 청·홍색의 겹보에서 홍색을 겹으로 하여 사용되었다. 연길보 역시 청·홍색의 겹보가 쓰였는데 청색을 겹으로 하여 연길을 썼다. 혼서보의 경우 흑색 겹보가 사용되었다. 함의 겹보와 속보로는 모두 홍색의 겹보가 마련되었다.

2. 혼례식

혼례식은 신랑집의 일행이 신부집에 도착한 후 홀기(笏記)에 따라 전안(奠雁)·교배(交拜)·합근(合巹)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즉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해 행보석(行步席)을 밟고 가 기러기를 드리고 난 뒤, 신랑과 신부의 교배와 합근의 예가 행해졌다.

<표 2> 박물관별 혼례유물

혼례 유물	박물관	국립 중앙박물관	국립 민속박물관	서울시립 역사박물관	경기도 박물관	강릉오죽헌 시립박물관	안동시립 민속박물관	온양 민속박물관	강원대 박물관	전주대 박물관	계
혼례 서식	사주		1		4			1		2	8
	청혼서				7		1				8
	연길		1		8			1		2	12
	허혼서				6						6
	의양		1								1
	혼서		2	2	25			2		2	33
	물묵		2								2
	홀기				2						2
소계		7	2	52		1	4		6	72	
혼례 용품	보		2					3		2	7
	목안	2	4	1	1	1	1	2	2	3	17
	함						1	1	1	1	4
	채단(혼수)		3					1			4
	혼례상							10		1	11
소계	2	9	1	1	1	2	17	3	7	43	
계	2	16	3	53	1	3	21	3	13	115	

여기서 신랑이 밝고 가는 좁은 돛자리인 행보석은 「광례람」(1893)과 「증보사례편람」(1900)에서 보면 전안례를 행할 때 신부 집에서 준비해야 할 물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귀한 손님이나 신랑·신부를 맞이할 때 마당에 까는 좁고 긴 돛자리로 풀이된다.

한편 혼례식에 마련되는 상(床)은 초례상(醮禮床), 대례상(大禮床) 혹은 독좌상(獨坐床)이라 불리었다. 본래 초례(醮禮)는 초기자(醮其子)·초기녀(醮其女)의 의미에서 부모가 아들이나 딸이 혼례식을 치르기 전 술을 한잔 내리고 몸가짐을 타이름을 뜻하던 것이었는데 점차 혼례를 치른다는 의미로 바뀌어 사용되었다. 이미 다산은 「가례작의」(1810)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랑·신부의 공뢰(共牢)를 초례라 하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 하였고, 이는 초례의 의미가 변용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혼례상 위에는 대추와 밤, 달떡 혹은 용떡 등이 놓였으며, 신랑·신부의 자리 앞에는 합근례(合罇禮)를 위한 상(床)이 마련되었다.

3. 혼례식 후

혼례식 후의 절차를 살펴보면 신부집에서 신랑의 관례벗김을 행한 뒤 혼례식 당일이나 합례를 치른 며칠 후 신부가 신랑집으로 가서 시부모와 시댁의 친족들, 돌아가신 조상을 뵙는 현구고와 사당폐백의 예를 행하였다. 이때 신부는 친정에서 마련해준 대추폐백과 고기폐백을 가지고 가 시부모께 예물로 드렸고, 만일 부모나 조부모 중 어느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 그분께도 폐백을 올렸

다. 대추폐백은 등글게 서려 담고, 고기폐백은 꿩고기나 쇠고기를 주재료로 한 포가 마련되었다. 각각의 폐백은 홍색이나 분홍색의 접보로 싸서 가져갔다.

현구고(폐백) 후 신부는 시댁에서 내리는 관례벗김을 입고 큰상을 받았다. 관례벗김을 위해서는 신랑과 신부의 의복 치수를 알아야 했고, 이를 위해 양가에서는 혼례식 전 의양(衣樣) 단자를 써서 보내곤 했다. 큰상은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여러 날에 걸쳐 정성껏 준비되었으며, 큰상의 음식은 받은 그대로 상대방 가(家)로 보내졌다. 이후 신랑과 신부는 친정으로 근친을 갔다가 혼수를 가지고,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다.

IV. 박물관 사이트상의 혼례유물 분석

1. 혼례 유물의 내용

혼례관련유물을 검색키워드에 의거하여 재분류하면 혼례서식(婚禮書式)과 혼례용품(婚禮用品)으로 대별할 수 있다. 사이트상의 텍스트(<부록 1>, <부록 2> 참조) 및 이미지 자료를 통해 유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혼례서식(婚禮書式)

72점으로 전체 유물의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는 서식은 총 8가

<표 3> 전반적인 혼례절차

구분	혼례에 관한 예서			혼례관행의 사례조사			
	가례작의(1810)	광례람(1894)	증보사례편람(1900)	박혜인(1991)	황경애(1994)	이길표·최배영(2000)	
혼례절차	혼례식 전	1.납채(△→○) 2.문명(△←○) 3.납길(△→○) 4.청기(△←○) 5.납정(△→○)	1.사주단지(△→○) 2.택일(△←○) 3.납폐(△→○)	1.약혼(△↔○) 2.주단(△→○) 3.연길(△←○) 4.납폐(△→○) (속칭 봉치)	1.혼담(△↔○) 2.사성(△→○) 3.택일(△←○) 4.합(△→○)	1.의혼(△↔○) 2.청혼서/사주(△→○) 3.허혼서/택일(△←○) 4.합(△→○)	1.중매로 정혼(△↔○) 2.사주/청혼서(△→○) 3.연길/허혼서(△←○) 4.합(△→○)
	혼례식	6.친영 1)초기자/ 초기녀(△) 2)전안 3)공뢰	4.전안(○) 5.교배(○) 6.합근(○)	5.전안(○) 6.교배(○) 7.합근(○)	5.신랑의 초행(△→○) 6.전안(○) 7.교배(○) 8.합근(○)	5.초행(△→○) 6.전안(○) 7.교배(○) 8.합근(○)	5.혼례식(○) 1) 전안 2) 교배 3) 합근
	혼례식 후	7.합례(○) 8.현구고(△) 9.예부지례(△) 10.관계지례(△) 11.향부지례(△) 12.현우묘(△)	7.신랑의 관례벗김(○) 8.합례(○) 9.신례(△) (현구고/상견례) 10.신부의 관례벗김(△) 11.해현례(△←○)	8.우례(△) 1) 현구고 2) 상견례 3) 신부의 관례 9.합례(○) 10.신행(△←○)	9.신랑의 재행(△←○) 10.신부의 신행(△←○) 11.폐백(△) 12.사당보이(△) 13.근친(△→○)	9.초야(○) 10.장인.장모에게 인사(○) 11.우귀(△←○) 12.현구고(△) 13.고사당(△) 14.근친(△→○)	6.신랑의 관례벗김(○) 7.폐백(△) 8.사당폐백(△) 9.신부의 관례벗김(△) 10.합례(○) 11.신행(△←○)

(기호 설명: △-신랑집, ○-신부집)

지로 사주 8점, 청혼서 8점, 연길 12점, 허혼서 6점, 의양 1점, 혼서(납폐서) 33점, 물목 2점, 홀기 2점이 검색되었다.

(1) 사주와 청혼서

혼인을 맺기 위해 신랑의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의 간지(干支)를 적어 신부집으로 보내는 사주(四柱)는 혼인을 청하는 서장(書狀)인 청혼서(請婚書)와 함께 작성되었는데 바로 혼인의 절차가 시작되는 첫 번째 문서(이해준, 1991)이기도 하다.

검색된 유물로 보았을 때 사주(四柱)는 서식 명칭에 있어 사성(四星), 사주단자(四柱單子)로 쓰였다(국립민속박물관 유물10174, 경기도박물관 유물4107). 대개 사주는 다섯 번 접어 가운데 칸에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써넣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년월일시의 간지를 행을 달리하여 적기도 하였다(<그림 3>).

사주의 크기는 간지(簡紙) 전면이 가로 35.6~43.5cm·세로 23~32.8cm, 봉투는 가로 6.7~7.5cm·세로 23.9~37cm를 나타냈다. 이를 보면 사주를 접었을 때 한 칸의 폭은 약 6~7cm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청혼서(<그림 4>)에는 '茲修剛儀兼呈柱單從速成禮'라고 하여 사주를 가리켜 주단(柱單) 혹은 '성단(星單)' 즉 사주단자나 사성단자로 칭하고 있다(경기도박물관 유물4576,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유물492).

(2) 연길과 허혼서, 의양

연길은 크기에 있어 전면 가로 31.3~52cm·세로 20.3~35cm, 봉투는 가로 5.7~7.3cm, 세로 23.9~30.5cm였다. 이를 보면 간지(簡紙)를 5번 혹은 6번 접었을 때 연길 한 칸은 약 6~7cm의 폭이 된다. 유물을 통해 볼 때 연길 작성양식에는 3가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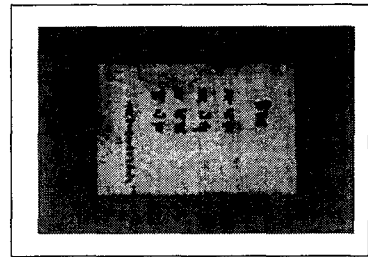
첫째 '納幣〇年〇月〇日' 혹은 '奠鴈〇年〇月〇日'이라고 써서 함을 보내는 납폐일만 혹은 전안(奠鴈)하는 혼인날만을 명시하는 것(국립민속박물관 유물 15107, 경기도박물관 유물4113)으로 이런 경우 함을 보내는 납폐일과 혼인날인 전안일은 각기 다를 수 있다.

둘째, 함을 보내는 납폐일과 혼인날을 함께 명시하는 것 즉 먼저 '納幣〇年〇月〇日'이라고 쓰고 그 옆에 '奠鴈同日'로 혼인날을 표기하는 양식(경기도박물관 유물4109, 전주대박물관 유물1842)으로 이는 납폐와 전안이 같은 날 행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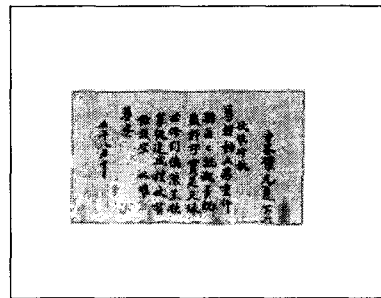
셋째, 납폐일은 물론 대례(大禮) 당일 절차의 시간과 방위, 경우에 따라서는 우귀일(于歸日)까지 함께 명시하는 경우(경기도박물관 유물4133, 전주대박물관 유물1841)도 있다.

이러한 유물들로 보면 연길(涓吉)은 납폐, 대례, 우귀 등의 혼례 절차에 관련하여 길(吉)한 날을 정한다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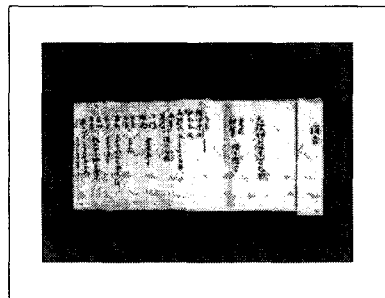
연길과 더불어 신부집에서는 혼인을 승낙한다는 의미의 허혼서(許婚書)를 써서 보낸다. 허혼서(<그림 6>)의 내용 중에 신랑의 옷 치수인 의제록(衣製錄)을 보내달라는 것을 첨부하기도 한다(경기도박물관 유물4574, 경기도박물관 유물4581). 의제록단자(衣製錄單子)는 의양(衣樣)이라고도 하며, 신랑집에서는 신랑의 도포 길이와 품의 옷 치수를 적어 신부집으로 보낸다(국립민속박물관 유물15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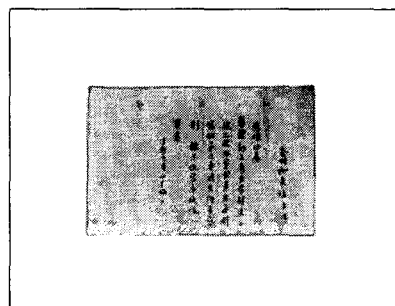
<그림 3> 사주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유물 10174)



<그림 4> 청혼서 (출처: 경기도박물관 유물 4576)



<그림 5> 연길 (출처: 경기도박물관 1841)



<그림 6> 허혼서 (출처: 경기도박물관 4574)

(3) 혼서(납폐서)와 물목

과거 혼인에 가장 정중한 서식이었던 혼서는 현존하는 혼례유물 중 가장 많은 수량을 나타냈다. 혼서 33점을 간추려 보면 명칭에 있어서는 예장지(禮狀紙), 납폐서(納幣書), 혼서지(婚書紙)가 쓰였다. 유물로 볼 때 혼서의 전면 크기는 가로 36.1~81.6cm·세로

38.6~65.7cm이며, 봉투는 가로 9.0~12.2cm·세로 47.2~62.4cm이다. 이를 보면 간지를 접었을 때 혼서 한 칸의 폭은 약 8.5~11.5cm가 된다. 간지(簡紙)와 봉투의 크기가 모두 제시되어 있는 유물의 경우(서울역사시립박물관 유물423, 경기도박물관 유물3306)를 보면 혼서의 간지와 봉투길이는 같으며, 이때 봉투는 위와 아래가 트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납폐의 과정에서 혼서와 함께 함 속에 넣어 보내기도 하는 물목(物目)은 혼수(婚需)의 내용물과 그 수량이 적혀 있으며, 혼수로는 옷감이 중심을 이룬다(국립민속박물관 유물4686, 15333).

(4) 홀기

예식의 진행절차를 기록한 식순(式順)을 홀기(笏記)라고 한다. 유물을 통해 볼 때 혼례 홀기에는 전안(奠鴈), 교배(交拜), 합근(合簪) 혹은 동퇴(同牢)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기록되어 있다(경기도박물관 유물4116, 4137). 이는 조선후기 예서에 나타나는 혼례식 절차에 비해 소략하지만 예식의 기본 진행 과정은 예서와 유물 모두 거의 유사하다.

2) 혼례용품(婚禮用品)

혼례용품은 혼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말한다. 관련 유물로는 보 7점, 목안 17점, 함 4점, 혼수 4점, 혼례상 11점으로 총 43점이 검색되었다.

(1) 보와 목안

보(襟)는 물건을 싸거나 덮기 위해 사용되는 보자기류와 덮개류이다. 본 조사에서는 사주보 2점, 연길보와 목안보가 각각 1점, 가마보가 3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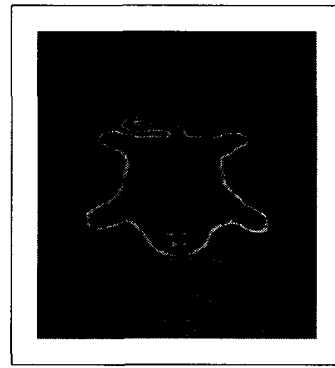
사주보(국립민속박물관 유물5151, 온양민속박물관 유물40)와 연길보(온양민속박물관 유물45)는 청·홍색의 견(絹)으로 네 귀를 맞추어 만들었으며, 서식을 쓴 뒤 고정시킬 수 있도록 끈을 달아 놓았다.

혼례식의 전안례(奠鴈禮)를 행하기 위해 마련해 가는 목기러기에도 보자기인 목안보(木鴈襟)가 이용되었다(온양민속박물관 유물54). 9개 박물관 모두에서 검색된 17점의 목기러기 유물들을 살펴보면 그 생김새와 크기(길이 24.5~42cm)가 매우 다양하다. 빙허각 이씨(憑虛閣 李氏, 1759~1824)는 「규합총서(閩閩叢書)」에서 기러기에 관해 언급하기를 ‘작은 것은 안(雁)이요, 큰 것은 홍(鴻)이니 네가지 덕(德)이 있다. 즉 더우면 남으로부터 북안문(北雁門)에 돌아가니 신(信)이요, 날 때 차례가 있어 앞에서 울면 뒤에서 화답하니 예(禮)요, 짝을 잃은 즉 다시 짝을 얻지 않으니 절(節)이요, 밤이 되면 무리를 지어 자고 하나가 순경하며 낮이 되면 갈대를 먹음에 증격(縉絳)을 피하니 지혜(智慧)인 고로 예폐(禮幣)하는데 쓴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기러기는 부부의 화합과 절개를 상징하는 예물로써 오랫동안 간주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가마보(국립민속박물관 유물 17290, 전주대박물관 유물 1167, 1177)는 호피(虎皮)가 그려진 담요(<그림 7>)로 혼례용구 중의 하나이다. 이는 혼례를 치르고 신행(新行)을 하는 신부의 가마 지

붕에 덮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호피담요가 신부에게 해를 미치는 잡귀와 액을 물리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원래 신부가마는 호랑이 가죽으로 지붕(<그림 8>)을 덮기도 했으나 조선후기 호랑이 가죽의 가격이 비싸 구하기 힘들어지자 호피가 그려진 담요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국립민속박물관, 2003).



<그림 7> 호피담요 (출처: 전주대박물관 유물 1167)



<그림 8> 신부행렬 (출처: 조선의 민속전통)

(2) 함과 채단(혼수)

혼례에 관련된 서식이나 용품을 넣어 담는 함(函)은 검색결과 사주함 1점(강원대박물관 유물565), 혼서와 채단을 넣는 예장함(禮狀函) 3점(온양민속박물관 유물49,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유물921, 전주대박물관 유물1497)이 조사되었다. 사례수가 적지만 사주함은 가로길이가 31.5cm, 예장함은 65.5~73.8cm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사주와 혼서 서식의 평균 길이에 부합됨을 알 수 있다.

물목(物目)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혼례예물로서 옷감은 혼수(婚需)의 중심을 이룬다.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보내는 혼수는 청색과 홍색의 채단(온양민속박물관 유물46)이 기본적인 것이고, 그밖에 집안 형편에 따라 달라 혼수감의 종류도 비단, 광목, 옥양목, 목면 등으로 다양했다. 대한제국 시대(1897~1910)의 유물로 남아

있는 혼수감의 하나가 견직물인 산동주(국립민속박물관 유물6046)인데 이는 치마·저고리·속옷·생활용품 등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울이 가늘고 바닥이 고우며 질이 좋은 마직물인 북포(국립민속박물관 유물6047)는 여름옷감으로 쓰였고, 면직물의 한가지인 당목(국립민속박물관 유물6050)은 옥양목이라고도 하였으며 적삼·치마 등을 지어 입으면 검박하며 아름다웠다(국립민속박물관, 2003). 1940년대부터 1970년대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단을 연구한 홍나영(2002)은 신랑측에서 신부측으로 보내는 신부의 치마감과 저고리감은 지역과 시대에 상관없이 필수적인 품목이었음을 지적하였고 이는 과거 혼례문화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3) 혼례상

혼례상차림에 관련된 유물은 대례상(大禮床)의 경우를 제외하곤 온양민속박물관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을 뿐이다. 시대에 대한 구체적 명시 없이 대부분 복제된 것이기는 하지만 납폐(納幣)시의 봉치상(封綵床)을 가늠케 하는 봉치시루를 비롯하여 대례(大禮)에서 쓰였던 각종 음식과 용구들 그리고 현구고례(見舅姑禮)의 폐백상(幣帛床)이 유물로 지정되어 있다.

2. 조선후기 예서 및 유물의 혼서(婚書)

본 연구에서는 우리 혼례문화의 원형을 재음미하는 측면에서 혼례유물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고자 조선후기 예서와 혼례유물 간 비교의 일환으로 혼서를 분석해보았다. 혼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사주 혹은 연길 등의 서식들과는 달리 혼서는 대부분의 예서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유물과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의(廣義)의 혼서는 혼인에 관련된 모든 서식을 통칭하지만 협의(狹義)로는 납폐를 행할 때 채단(綵緞)과 함께 함에 넣는 납폐서(納幣書)를 의미한다.

박물관 사이트를 통해 검색된 총 33점의 혼서 유물 가운데 첫째 각 박물관의 텍스트 자료상에 조선시대로 시대가 명시되고, 둘째 간지와 봉투가 쌍(雙)을 이루고 있으며, 셋째 이미지자료로서 혼서의 내용이 분석 가능한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6점의 혼서(<표 3>)가 분석 자료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서식의 작성일자에 준해서 볼 때 조선후기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1) 예서와 유물에 나타난 혼서

<표 4>에는 조선후기 예서에 나타난 혼서와 본 조사에서 선정한 유물 혼서 6점을 사례별로 제시하였다. 예서로는 고례(古禮)와 당시 사회의 풍습을 참작해 쓰여진 「가례작의」(1810), 혼례제구(婚禮諸具)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광례람」(1893), 그리고 혼례시 양가(兩家)에서 갖추어야 할 혼례준비물이 명시되어 있는 「증보사례편람」(1900)을 고찰하였다.

(1) 혼서 간지

① 간지의 내용은 보내는 사람인 신랑측의 주혼자가 자신의 본

관과 성명을 밝히는 것에서 시작된다. 성명 아래에는 ‘拜’(예서 3), ‘再拜’(유물 1·4·5·6) 혹은 ‘頓首’(유물 3)라고 하여 예서보다는 유물들에서 실생활에 적용된 인사의 방법까지 유추해낼 수 있다. 특히 유물 6은 하회(河回) 북촌덕(北村宅)을 지은 유도성(柳道性)이 주혼자가 되었을 때의 사례로 경상도사(慶尙都事)인 자신의 관직을 밝히며 인사의 예를 갖추고 있다.

- ② 일기(日氣)에 대해 쓰되 음력에 준하여 계절을 명시하였다. 예를 들어 음력 1월이면 ‘孟春’(예서 3) 혹은 ‘元春’(유물 4)이라고 하며, 음력 3월이면 ‘季春’(유물 1), 음력 11월이면 ‘仲冬’(유물 2)이라고 쓴다.
- ③ ‘伏承嘉名許以令愛脫室僕之子某’(예서 1·2, 유물 3·4·5·6) 혹은 ‘尊體百福僕之第〇子〇〇年既長成未有伉儷伏蒙尊慈許以令愛脫室’(예서 3, 유물 1·2)이라고 하여 귀댁의 따님을 아들 아무개의 아내로 주심을 허락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한 뜻을 전한다. 이때 신부가 주혼자의 딸이 아닌 여동생인 경우에는 ‘令愛’ 대신 ‘令妹’(유물 4), 조카인 경우에는 ‘令侄女’(유물 3) 혹은 ‘令姪’(유물 5)이라고 쓴다. 또한 신랑측의 주혼자가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인 경우에는 ‘僕之次子〇〇之子〇〇’(유물 1), 숙부인 경우에는 ‘僕之從侄〇〇’(유물 5)이라고 하여 신랑과 주혼자인 자신과의 관계를 밝힌다.
- ④ ‘茲有先人之禮觀行納幣之儀’라고 하여 선인의 예로써 삼가 납폐의 의식을 행한다는 뜻을 전한다. 이때 혼례에 관련된 용어 중 관행적으로 일컬어 온 ‘함을 보낸다’는 말이 서식을 갖출 때만큼은 예서와 유물 모두 ‘納徵’(예서 1, 유물 6) 혹은 ‘納幣’(예서 2·3, 유물 1·2·3·4·5)로 사용되고 있다.
- ⑤ ‘不備伏惟尊照 謹拜上狀’하여 신랑측의 주혼자는 겸손의 자세로 맺는 인사말을 쓰고, 작성한 날짜(年·月·日)를 적는다.

(2) 혼서 봉투

「광례람」(예서 2)과 「증보사례편람」(예서 3)에는 혼서 봉투를 ‘皮封’ 혹은 ‘皮封式’으로 명시하고 있어 유물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 ① 예서와 유물 모두 봉투의 가운데 붙임 선을 기준으로 오른편에는 ‘上狀’이라고 쓰고, 왼편에는 혼서를 받는 사람인 신부측 주혼자의 성(姓)과 함께 직함(職銜)내지는 존칭어(尊稱語)를 쓴다. 유물 6은 신부측의 주혼자가 ‘감역(監役)’ 즉 조선시대 궁궐과 관청의 건축 수리 공사를 감독했던 선공감(繕工監)에 속한 종 9품 관직을 지냈던 사람임을 짐작케 한다. 유물 2·4·5는 ‘생원(生員)’이라고 하여 조선시대 나이 많은 선비를 의미하던 존칭어가 쓰이고 있다. 그밖에 유물 1은 ‘주사(主事)’, 유물 3은 ‘석사(碩士)’라고 칭하여 벼슬이 없는 상대를 높여 부르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 ② 앞서 혼례서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서는 봉투의 위와 아래가 트여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혼서는 사주나 연

겉과는 다른 마무리가 필요하다. 예서에는 혼서의 겉봉에 삼가 봉한다는 의미의 '謹封'이라고 쓰고, 더불어 '押(예서 2)' 혹은 '印(예서 3)'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유물에서 찾아보면 봉투의 붙임 선에 보낸 사람이 도장 대신으로 사용하는 일정한 표지인 수결(手決)이 남아 있고 수결 아래에 '근봉(謹封)'을 직접 쓰거나 근봉이라고 쓴 종이로 띠(유물 1·3)를 둘러 서식으로서의 맺음을 하였다.

2) 혼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의 가정과 혼인

다음으로 6점의 혼서 유물을 통해 조선후기 사회의 가정과 혼인을 연관지어 가정의 주혼자(主婚者), 혼인의 시기(時期), 그리고 가격(家格)의 상징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5>).

(1) 가정의 주혼자

각 가정에서 혼인이 있을 때 모든 일을 주관하고, 가정적인 책임을 맡는 사람을 주혼(主婚) 혹은 주혼자(主婚者)라고 한다. 혼서 유물을 보면 당시 혼인을 맺었던 두 가문의 주혼자와 혼인당사자 간의 관계가 나타난다. 먼저 신랑측은 주혼자가 부(父)인 경우(1촌) 3사례, 조항(祖行)인 경우(2촌 혹은 8촌) 2사례, 숙항(叔行)인 경우(5촌) 1사례였고, 신부측은 주혼자가 부(父)인 경우(1촌) 1사례, 조항(祖行)인 경우(4촌 혹은 6촌) 2사례, 숙항(叔行)의 경우(3촌) 2사례, 오빠가 주혼자인 경우(2촌) 1사례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17세기 이후 강화되기 시작한 부계 친족집단으로서 당내(堂內)의 유대와 기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당내에 포함되는 친족인 당내친(堂內親)은 부계(父系)의 계통으로 이어지는 형제들의 가족이 일정한 범위 즉 동고조(同高祖) 8촌(寸)의 범위를 정하여 집단을

<표 4> 예서 및 유물의 혼서

		
<p>예서 1 「가례작의」 (1810)</p>	<p>유물 1 국립민속박물관 유물 5242</p>	<p>유물 4 경기도박물관 유물 3305</p>
		
<p>예서 2 「광례람」 (1893)</p>	<p>유물 2 서울역사시립박물관 유물 3947</p>	<p>유물 5 경기도박물관 유물 3306</p>
		
<p>예서 3 「증보사례편람」 (1900)</p>	<p>유물 3 전주대박물관 유물 1840</p>	<p>유물 6 경기도박물관 유물 3307</p>

이론 것이다. 이 당내에는 항렬, 연령, 덕망이 높은 문장(門長)이 있어 외부에 대해 당내를 대표한다(김혜선·박혜인, 1993). 본 조사의 혼서 유물에서도 부계 8촌의 범위 내에 당내를 대표하는 사람이 주혼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혼례의 제반 사항을 주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혼인의 시기

혼서유물을 종합해보면 혼서의 작성 날짜는 농번기인 음력 4월에서 9월을 모두 벗어나고 있다. 혼례를 치르는 전안일(奠鴈日)이 명시되어 있는 연길 11점 가운데 8점이 음력 2~3월, 음력 10~11월로 나타나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문화재관리국(1977)의 혼례 조사에서 삼복이 낀 달, 농번기, 6월과 12월은 피해 혼인날을 택했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를 보면 조선 후기 농경중심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가정의 혼인 날짜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가격(家格)의 상징

혼서를 쓸 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의미에서 특정 용어나 기록 양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혼서 봉투에 상대방에 대한 직함(職銜)이나 존칭어(尊稱語)를 사용하는 것, 수결(手決)을 하고 삼가 봉한다는 의미의 근봉(謹封)으로 봉투를 끝맺음하는 것은 격(格)을 갖추어 공경의 뜻을 전하는 표식이자 방법이 된다. 이 외에도 혼서 간지(簡紙)의 내용을 살펴보면 ‘忝親(유물 6)이란 단어는 자신을 낮추는 겸양(謙讓)의 의미에서 한 줄 아래에 적거나 동일한 줄에 기록(권영원·민정희, 2001)하며, 상대방의 가문을 높이는 ‘儗’자나 ‘尙愛’ 등의 표현은 대개 한 줄을 올려 적는다(유물 1·2·4·5).

한편 유물 3과 같은 경우에는 신랑측 주혼자가 자신의 본관(本貫)과 성명(姓名) 아래에 ‘頓首’라고 표기하고 있다. 본래 돈수는 문무관(文武官)의 관직이 서로 같은 사람끼리 행하는 절(표성은, 1989)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두 가문이 서로 동격(同格)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혼서는 혼인을 맺는 상대방 가문에 대해 겸양의 예(禮)

로 격식을 갖추어 공경(恭敬)과 감사(感謝)의 뜻을 전하는 가문간 결합의 상징(象徵)으로 어느 혼례품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을 예시하듯 조선 후기 반가(班家)에서의 삶을 살아왔던 96세의 여성은 부모로부터 전해 받아 일생동안 보관해온 자신의 혼서를 관에 넣어 가져갈 것이라고 구술(이길표·최배영, 2000)한 바 있다. 이는 혼서의 종이 한 장, 글자 하나하나, 그리고 수결에 내재되어 있던 혼례의 소중함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했던 것이다.

조선 후기 예서와 유물을 통해 살펴본 혼서는 양자 모두 정형화된 서식의 양식이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 시속(時俗)과 관행(慣行)을 도외시하지 않고, 당시의 실생활에 알맞은 실천적 성격의 예서가 등장(최배영, 1999)하여 예(禮)의 생활화(生活化)내지는 세속화(世俗化)가 활발히 추구(최영성, 1995)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듯 혼서 유물은 조선시대 예서를 가까이 접하여 그 내용대로 가례(家禮)를 행하고자 노력하였던 사대부가의 혼례를 짐작케 하는 자료이다. 여기에 또 한가지, 혼례문화를 연구함에 있어 우리가 예서와 유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각각의 해답에는 어느 정도 깊이의 차이가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즉 문헌을 통해 우리가 밝힐 수 있는 혼례문화는 평면적으로 파악되는 도면에 불과하지만 유물을 통해서만 보다 생생한 입체감이 전달되는 차이가 있다. 혼서라는 서식 하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서를 고찰하면 혼서 서식의 뼈대는 알 수 있지만 상황이나 대상에 따른 실제 적용의 사례 즉 당시에 혼서를 쓰는 주혼자의 역할은 누가 담당했는지, 혼서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어떠한 문구를 혼서에 쓸 수 있었는지, 혼서는 대체로 어느 시기에 보였으며 언제 혼인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격식에 맞추어 혼서 봉투를 마무리했었는지는 유물을 통해 더 명료히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보면 혼례 관련 유물들은 기록물에 덧붙여 또 다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부수적인 통찰력(이욱, 2001)을 갖도록 도와주는 장점을 지닌다고 하겠다. 조선시대의 예서에 남아있는 기록이 규범적인 이상(理想)을 토대로 쓰여진 것이라면 유물은 그 내용과 형태를

<표 5> 혼서 유물의 내용

구분	신랑측		신부측		혼서 작성일자
	주혼자의 성씨	주혼자와 신랑과의 관계	주혼자의 성씨(직함)	주혼자와 신부와의 관계	
유물 1	潭陽 田氏	주혼자의 次子의 子	李(主事)	주혼자의 女	乙巳 三月初三日
유물 2	延安 李氏	주혼자의 子	南(生員)	주혼자의 從孫女	乙巳 十一月 初八日
유물 3	光山 金氏	주혼자의 次子	宋(碩士)	주혼자의 侄女	辛亥 十二月 九日
유물 4	福川 吳氏	주혼자의 子	宋(生員)	주혼자의 妹	辛亥 正月初四日
유물 5	福川 吳氏	주혼자의 從侄	徐(生員)	주혼자의 姪	辛卯 十二月 初二日
유물 6	豊山 柳氏	주혼자의 再從侄의 第二子	吳(監役)	주혼자의 再從孫女	辛丑 十月 十日

통해 혼례문화에 대한 연구에 실증적 역사자료가 될 수 있는 셈이다.

V. 결 론

이상 혼례유물의 내용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 혼례문화의 원형을 탐구하는 사료(史料) 정리의 일환으로 문헌고찰(가례작의; 광례람; 증보사례편람) 및 사례조사(박혜인, 1991; 황경애, 1994; 이길표·최배영, 2000) 연구를 종합해 조선후기 혼례유물의 현황, 유물분석연구의 특징과 기존의 문헌 및 사례연구방법과의 상호보완 방향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웹사이트를 통해본 박물관 소장 유물의 현황으로 혼례유물 115점은 시대를 짐작할 수 없는 약 23.5%를 제외하고 조선후기의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을 문헌(예서) 연구와 사례조사 연구를 통해 분석되는 혼례서식 및 혼례용품과 비교해보면 서식에 있어서는 어느 연구방법에서든 해당 사료들을 접해볼 수 있으나 용품의 경우에는 문헌고찰과 사례조사가 혼례유물분석보다 다소 많은 종류를 나타내고 있다(<표 6>). 그러나 이들 수치에만 연연하기 보다는 오늘날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혼례유물 가운데 혼례문화의 원형을 재조명하는데 필요한 몇몇 유물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그로 인해 단지 문헌이나 사례조사에 의한 구술에 간접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살펴본 박물관 소장 혼례유물의 경우 혼례식전 납폐절차에 소요되는 혼서보, 황낭, 부용향, 함 속보 등 함속의 구체적 내용물들을 찾아볼 수 없으며, 혼례식 후 행하는 폐백에 쓰였던 폐백보와 사당폐백의 상차림, 신랑·신부의 큰상차림 등의 유물들도 파악되지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혼례의 중요성에 의의를 부여했던 우리 여성들의 마음자세와 생활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임에 주지해야 된다. 성혼(成婚)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신부집으로 보내는 혼서를 썼던 혼서보, 음양의 결합을 뜻하는 청색·홍색의 채단을 포장했던 함 속보, 콩·팥·면화 등을 넣어 건강한 자녀출산을 기원했던 황낭, 나쁜 기운을 멀리하여 주위를 정화(淨化)한다고 믿어졌던 부용향 등을 넣은 함을 신부집으로 보내는 자리에서 어머니를 비롯한 신랑집의 여성들은 최선을 다해 정성을 기울였을 것이다. 또한 공경의 자세로 준비한 폐백을 예물로 여기고 이를 소중히 포장하는데 쓰였을 폐백보와 사당 폐백을 위한 상차림, 그리고 신랑·신부를 맞이하는 기쁨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했을 큰상차림 등도 역시 한국의 혼례문화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숭고한 정성과 공경의 결정체임에 틀림없다. 이에 관련 연구와 유물의 복원, 시연(試演)의 기회를 통해 우리 조상들이 일궈낸 혼례문화의 미풍양속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재인식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측면이다.

둘째, 혼례문화연구에 있어 문헌고찰, 사례조사, 유물분석은 각기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문헌연구의 경우 의례서의 저자들이 대부분 남성들인 점을 감안한다면 조선후기 혼례문화에

<표 6> 연구방법별 조선후기 혼례문화의 사료(史料) 분석

혼례문화 사료		연구방법	문헌고찰	사례조사	유물분석	
혼례서식	사주		*	*	*	
	청혼서		*	*	*	
	연길		*	*	*	
	허혼서		*	*	*	
	의양		*	*	*	
	혼서		*	*	*	
	물목		*	*	*	
	홑기		*	*	*	
소계			8	8	8	
혼례용품	보자기	사주보	*	*	*	
		연길보	*	*	*	
		혼서보	*	*	*	
		목안보		*	*	
		함속보	*	*	*	
		함겉보	*	*	*	
		폐백보		*	*	
	납폐물	함	*	*	*	
		채단	*	*	*	
		부용향	*	*	*	
		황낭	*	*	*	
	상차림	봉치상	*	*	*	
		전안상	*	*	*	
		대례상	*	*	*	
		시부모폐백상	*	*	*	
		사당폐백상	*	*	*	
	기타	행보석	*	*	*	
		호피담요			*	
	소계			16	18	11
	합계			24	26	19

서 혼서와 같은 서식 작성의 역할을 담당했던 남성들의 기록물을 통해 비교적 규범적 내용의 혼례절차와 그에 따른 서식 자료 발굴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 사례조사는 주로 노년층 여성들을 면접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혼례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서 문헌연구에 비해 혼례용품의 실제 모습에 관한 폭넓은 자료수집의 잇점을 지닌다. 이에 반해 유물의 내용분석은 문헌고찰과 사례조사 결과의 재확인, 재검토의 작업단계로서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혼례문화연구는 문헌고찰, 관련유물분석, 나아가 사례조사연구가 선택적으로 병행되어 서로 보완을 이룬다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혼례문화 코드(code)를 발견하고, 그를 조합해나가는 데 각기 제 역할을 심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혼례유물연구는 종합학문의 시각을 갖는 학제간 연구를 기반으로

심도 있는 학문적 논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서 보다 종합적인 연구 시안(試案)을 갖는 학제간 연구가 그 역량을 발휘하리라 판단된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이 박물관이나 고고학에서만 다루어진다면 그 진가를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가정학계에서는 주로 의상학과 의류직물학(민길자, 1998; 류보영·임상임, 1999)만이 박물관 유물들에 대한 연구를 정진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가정학은 다양한 연구방법들간의 상호보완으로 박물관, 역사학, 민속학 등 타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역사성을 담고 있는 유물 연구에 대한 가치와 시야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가정학은 혼례유물자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잠들어있는 혼례문화 사료의 발굴과 복원의 책무 하에 다양한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학술적 정리 및 분석을 체계화하여 바른 혼례문화 이해 도모를 위한 원형 탐구 노력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박물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다른 의례문화 유물에 관한 연구 그리고 그를 통한 각 의례간의 관련성을 파악해나가는 것이 요구되며, 이는 우리 혼례문화에 대한 창조적 발전을 추구해나가는 선행 작업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의례문화의 사회문화적 연계 고리를 관찰하는 접경이 될 것이다.

- 접수일 : 2003년 03월 14일
- 심사일 : 2003년 03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10월 10일

【참 고 문 헌】

국립민속박물관(2003). 혼례. <http://www.nfm.go.kr>
 권영희·민정희(2001). 한남대 박물관 소장 혼례관련 고문서해제. **고고와 민속** 4. 191-207.
 김정근·홍형욱(1996). 혼례변화에 따른 혼수기물과 혼례가구의 변천 I - 고대이후 조선시대까지- **대한가정학회지** 34(1). 189-202.
 김혜선·박혜인(1993). **한국가정생활사**. 한국방송통신대학.
 류보영·임상임(1999). 장옷(長衣)에 관한 고찰: 박물관 유물을 중심으로. **논문집** 23. 원광대학교학원. 137-147.
 문옥표 외(1999). **조선시대 관혼상제 I - 관례·혼례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197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문화관광부(2003). **2003년도 제1차 문화콘텐츠기술개발사업**. <http://www.mct.go.kr>
 민길자(1998). 우리나라 박물관에 소장된 전통직물 유품 조사: 직물을 중심으로. **국립대생활환경연구** 4. 1-23.
 박물관종합정보안내(2003). <http://www.korea-museum.go.kr/>
 박인원(2002). **박물관 유물관리 전산화를 위한 유물분류표준화** 국립민속박물관.
 박혜인(1990). 혼인의식의 역사적·상징적 고찰논문 I. **한국가족학술연구 발표회집**, 여성한국사회연구회. 3-21.
 박혜인(1991). **한국전통혼례의 연속과 단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17-73.
 병허각 이씨 저. 정양완 역(1984). **규합총서**. 서울:보진재.
 이길표·최배영(1998). 주자「가례」와 그에 나타난 혼례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6(3). 77-86.
 이길표·최배영(2000). 조선 후기 의례서에 나타난 혼례에 대한 역사적 고찰 -19세기전반~20세기초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77-191.
 이두영 외(2001).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한국도서관협회.
 이영행(1999). **농경박물관의 자료해석과 전시체계**.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욱(2001). 물질문화연구와 박물관 -생활용구를 중심으로- **생활문화연구** 2. 국립민속박물관. 5-24.
 이정우·김명나(1990). 도시 주부의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05-124.
 이해준(1991). **생활문화와 옛 문서**. 민속박물관학술총서 10. 국립민속박물관.
 장하경(1996). 한국 사회변동에 따른 혼례관행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1). 147-161.
 정용선·김경연·김득성(1995). 혼수의 사회적 의미 및 혼수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교환이론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3(6). 115-136.
 조선의 민속전통 편찬위원회(1994). **조선의 민속전통- 주택과 가족생활 풍습-**.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주중택(2000). 서양의 물질문화연구현황. **생활문화연구 창간호**. 국립민속박물관. 7-32.
 최배영(1999). **가례서에 나타난 혼례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영성(1995). **한국유학사상사Ⅲ**. 서울:아세아문화사.
 홍나영·이은진·박선희(2002). 20세기 한국의 혼례문화변천에 관한 연구 - 서울과 경상도의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40(11). 141-156.
 황경애(1994). **혼례행례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Danial Riffe, Stephen Lacy, Frederick G. Fico. 배현석 역(2001). **미디어내용분석방법론**.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Jennifer Mason. 김두섭 역(1999).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나남출판.
 Ronald R. Powell. 홍현진 역(1996). **문헌정보학의 연구방법론**. 서울:구미 무역출판부.

<부록 1> 혼례서식(婚禮書式)

구분	유물명칭	국적/시대	재질	크기	용도/기능	소장기관	유물번호
사주 (8)	사성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38cm 세로 28.5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국립2/ 민속	민속 10174
	사주단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36.5cm 세로 32.8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107
	사주단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36.1cm 세로 23.5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108
	사주단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43.5cm 세로 23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112
	사주단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35.6cm 세로 26.4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119
	사주단지 (四柱單子)	한국(韓國)	지(紙)	가로 7.5cm 세로 37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사립/ 온양민속	온양민속 37
	사성	한국(韓國)/ 조선(朝鮮)	.	가로 6.8cm 세로 30.1cm	혼례(婚禮)/기타(其他)	학교/ 전주대	인수 1843
	사성	한국(韓國)/ 조선(朝鮮)	.	가로 6.7cm 세로 23.9cm	혼례(婚禮)/기타(其他)	학교/ 전주대	인수 1844
청혼서 (8)	청혼서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40.6cm 세로 28.0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60
	청혼서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41.7cm 세로 31.8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63
	청혼서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37.2cm 세로 35.1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68
	청혼서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38.3cm 세로 28.8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76
	청혼서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41.5cm 세로 23.6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77
	청혼서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39cm 세로 31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78
	청혼서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53.7cm 세로 36.5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93
	청혼서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44cm 세로 29.3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안동민속	구입 492
연길 (12)	연길(淸吉)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40cm 세로 28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국립2/ 민속	민속 15107
	※연길단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37.6cm 세로 23.6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109
	※연길단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35.3cm 세로 25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113
	연길단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52cm 세로 35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114
	연길단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31.3cm 세로 20.3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118
	연길단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39.7cm 세로 26.8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133
	※연길단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49cm 세로 34.3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134
	※연길단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45cm 세로 28.3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136
	※연길단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45.8cm 세로 32.5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140
	연길(淸吉)	한국(韓國)	지(紙)	가로 7.3cm 세로 30.5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사립/ 온양민속	온양민속 41
	날받이	한국(韓國)/ 대한제국	.	가로 6.9cm 세로 29.8cm	혼례(婚禮)	학교/ 전주대	인수 1841
	날받이	한국(韓國)/ 조선(朝鮮)	.	가로 5.7cm 세로 23.9cm	혼례(婚禮)	학교/ 전주대	인수 1842

구분	유물명칭	국적/시대	재질	크기	용도/기능	소장기관	유물번호
허혼서 (6)	허혼서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39cm 세로 27.1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72
	허혼서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48.3cm 세로 31.4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74
	허혼서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43.8cm 세로 30.6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79
	허혼서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46cm 세로 29.3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81
	허혼서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40cm 세로 ?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82
	허혼서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44.6cm 세로 23.5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83
의양 (1)	의양	한국(韓國)	지(紙)	가로 37.5cm 세로 27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국립2/ 민속	민속 15331
혼서	예장지 (禮狀紙)	한국(韓國)/ 시대미상	지(紙)	가로 66cm 세로 64cm	혼례(婚禮)	국립2/ 민속	민속 4683
	혼서(婚書)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10.2cm 세로 54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국립2/ 민속	민속 5242
	혼서(婚書)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봉투 -가로 10.3cm 세로 62.0cm 본문 -가로 79.1cm 세로 62.0cm	혼례(婚禮)	공립/ 서울시립	서울시립 423
	혼서(婚書)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79.8cm 세로 59.0cm	혼례(婚禮)	공립/ 서울시립	서울시립 3947
	납폐서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43.5cm 세로 59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885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저지(楮紙)	가로 60.6cm 세로 60.5cm/ 가로 12cm 세로 60.5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3305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저지(楮紙)	가로 60.5cm 세로 53.5cm/ 가로 9.1cm 세로 53.5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3306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저지(楮紙)	가로 81.6cm 세로 47.2cm/ 가로 9.8cm 세로 47.2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3307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64.8cm 세로 57.4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51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53.7cm 세로 51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52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64.2cm 세로 52.9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54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73.2cm 세로 52.2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55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47.8cm 세로 49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56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51cm 세로 45.3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62

구분	유물명칭	국적/시대	재질	크기	용도/기능	소장기관	유물번호
혼서 (33)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54.2cm 세로 45.3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66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55.4cm 세로 47.7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70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39.3cm 세로 65.7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71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47.5cm 세로 55.5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73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36.1cm 세로 42.5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75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37.5cm 세로 58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84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54.4cm 세로 38.6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85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56.7cm 세로 50.1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86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46.7cm 세로 58.7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87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52.5cm 세로 44.2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88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47.4cm 세로 53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89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41.4cm 세로 58.9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90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57.5cm 세로 58.2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91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51.7cm 세로 41.2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92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46.7cm 세로 50.2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공립/ 경기도	소장 4594
	혼서(婚書)	한국(韓國)	지(紙)	가로 9cm 세로 58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사립/ 온양민속	온양민속 47
	혼서(婚書)	한국(韓國)	지(紙)	가로 10cm 세로 55.5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사립/ 온양민속	온양민속 48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	가로 12.2cm 세로 62.4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학교/ 전주대	인수 1839
	혼서지	한국(韓國)/ 조선(朝鮮)	.	가로 10.6cm 세로 58.2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학교/ 전주대	인수 1840
물목 (2)	물목	한국(韓國)/ 시대미상	지(紙)	가로 6.5cm 세로 24cm	혼례(婚禮)	국립2/ 민속	민속 4686
	혼수물목	한국(韓國)	지(紙)	가로 78cm 세로 23.5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국립2/ 민속	민속 15333
홀기 (2)	홀기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27cm 세로 17.3cm	혼례(婚禮)/ 홀기(笄記)	공립/ 경기도	소장 4116
	혼례홀기	한국(韓國)/ 조선(朝鮮)	지(紙)	가로 39.8cm 세로 28.4cm	혼례(婚禮)/ 홀기(笄記)	공립/ 경기도	소장 4137

※ 박물관 사이트에서 유물명칭의 오키(誤記)가 있어 연구자가 정정한 사례임

<부록 2> 혼례용품(婚禮用品)

구분	유물명칭	국적/시대	재질	크기	용도/기능	소장기관	유물번호
보 (7)	사주보 (四柱褙)	한국(韓國)/ 시대미상	청색/홍색 견(絹)	가로 40.8cm 세로 40cm 끈길이 54cm	혼례(婚禮)	국립2/ 민속	민속 5151
	사주보 (四柱褙)	한국(韓國)	사직(絲織)/ 견(絹)	가로 36.5cm 세로 36.5cm 끈길이 50.5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사립/ 온양민속	온양민속 40
	연길보 (沿吉褙)	한국(韓國)	사직(絲織)/ 견(絹)	가로 49.5cm 세로 51cm 끈길이 47cm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사립/ 온양민속	온양민속 45
	가마보	한국(韓國)/ 일제강점	사직/모직	가로 118cm 세로 178cm	혼례(婚禮)	국립2/ 민속	민속 17290
	호피담요	한국(韓國)/ 조선(朝鮮)	피모(皮毛)/ 양모(羊毛)	가로 170cm 세로 119cm	혼례(婚禮)	학교/ 전주대	구입 1167
	호피담요	중국(中國)/ 청(淸)	사직(絲織)/ 모직(毛織)	가로 150cm 세로 126cm	혼례(婚禮)	학교/ 전주대	기증 1177
	목기러기보 (木雁褙)	한국(韓國)	사직(絲織)/ 견(絹)	가로 28cm 세로 27.7cm 끈길이 63.5cm	혼례(婚禮)/ 전/목안(奠/木雁)	사립/ 온양민속	온양민속 54
목안 (17)	목안(木雁)	한국(韓國)/ 일제강점	나무	높이 12.9cm 길이 36.4cm 너비 21.3cm	혼례(婚禮)/ 전/목안(奠/木雁)	국립1/ 중앙	신수(新收) 9606
	목안(木雁)	한국(韓國)/ 일제강점	나무	높이 14.5cm 길이 42cm 너비 22.2cm	혼례(婚禮)/ 전/목안(奠/木雁)	국립1/ 중앙	신수(新收) 9607
	목안(木雁)	한국(韓國)/ 조선(朝鮮)	나무/소나무	전체길이 29cm 높이 17cm 허리둘레 29cm	혼례(婚禮)/ 전/목안(奠/木雁)	국립2/ 민속	민속 2191
	기러기	한국(韓國)/ 조선(朝鮮)	나무	전체길이 30cm 높이 19cm 너비 10.5cm	혼례(婚禮)/ 전/목안(奠/木雁)	국립2/ 민속	민속 2577
	기러기	한국(韓國)/ 조선(朝鮮)	나무	전체길이 31cm 높이 16cm 너비 9.5cm	혼례(婚禮)/ 전/목안(奠/木雁)	국립2/ 민속	민속 2578
	오리	한국(韓國)/ 시대미상	나무	높이 19cm	혼례(婚禮)	국립2/ 민속	민속 6262
	나무기러기-목안 (木雁)	한국(韓國)/ 조선(朝鮮)	나무	길이 32.4cm 높이 13.5cm 너비 7.7cm	혼례(婚禮)	공립/ 서울시립	서울시립 1201
	목안	한국(韓國)/ 조선(朝鮮)	나무/소나무	가로 25.7cm 세로 8.7cm 높이 16.3cm	혼례(婚禮)/ 전/목안(奠/木雁)	공립/ 경기도	소장 3633
	목기러기	한국(韓國)/ 조선(朝鮮)	나무/밤나무	높이 24.5cm 길이 32.1cm	혼례(婚禮)/ 전/목안(奠/木雁)	공립/ 강릉시립	강릉시립 1420
	목안	한국(韓國)/ 조선(朝鮮)	나무	길이 33cm 너비 9.2cm 높이 21cm	혼례(婚禮)/ 전/목안(奠/木雁)	공립/ 안동민속	구입 447
	목기러기	한국(韓國)	.	전체길이 28cm	혼례(婚禮)/ 전/목안(奠/木雁)	사립/ 온양민속	온양민속 2413
	목기러기	한국(韓國)	나무/소나무	전체길이 37cm	혼례(婚禮)/ 전/목안(奠/木雁)	사립/ 온양민속	온양민속 56
	나무기러기	한국(韓國)/ 조선(朝鮮)	나무	높이 22cm 길이 35cm 너비 9.5cm	혼례(婚禮)/ 전/목안(奠/木雁)	학교/ 강원대	구입 74
	나무기러기	한국(韓國)/ 조선(朝鮮)	나무	높이 20.5cm 길이 31.5cm 너비 9.8cm	혼례(婚禮)/ 전/목안(奠/木雁)	학교/ 강원대	구입 912
	목안	한국(韓國)/ 조선(朝鮮)	.	길이 25.5cm 높이 13.5cm	혼례(婚禮)/ 전/목안(奠/木雁)	학교/ 전주대	구입 901
	목안	한국(韓國)/ 조선(朝鮮)	.	길이 39cm 높이 18.5cm	혼례(婚禮)/ 전/목안(奠/木雁)	학교/ 전주대	구입 1067
	목안	한국(韓國)/ 조선(朝鮮)	.	길이 32cm 높이 19.2cm	혼례(婚禮)/ 전/목안(奠/木雁)	학교/ 전주대	구입 1565

구분	유물명칭	국적/시대	재질	크기	용도/기능	소장기관	유물번호
합 (4)	사주함	한국(韓國)/ 조선(朝鮮)	나무	가로 31.5cm 세로 17cm 높이 11cm	혼례(婚禮)/ 예장함(禮狀函)	학교/ 강원대	구입 565
	예장함 (禮狀函)	한국(韓國)	나무/소나무	가로 68cm 세로 38.5cm 높이 34.5cm	혼례(婚禮)/ 예장함(禮狀函)	사립/ 온양민속	온양민속 49
	혼수함	한국(韓國)/ 조선(朝鮮)	.	가로 65.5cm 세로 34cm 높이 34cm	혼례(婚禮)/ 예장함(禮狀函)	학교/ 전주대	구입 1497
	혼수함	한국(韓國)/ 조선(朝鮮)	나무	가로 73.8cm 세로 39cm 높이 22.5cm	혼례(婚禮)/ 예장함(禮狀函)	공립/ 안동민속	구입 921
혼수 (4)	산동주	한국(韓國) /대한제국	사직(絲織)/ 견(絹)	가로 70cm 세로 530cm	혼례(婚禮)	국립2/ 민속	민속 6046
	북포	한국(韓國) /대한제국	사직(絲織)	가로 32.7cm 세로 1140cm	혼례(婚禮)	국립2/ 민속	민속 6047
	당목	한국(韓國) /대한제국	사직(絲織)	가로 87cm 세로 400cm	혼례(婚禮)	국립2/ 민속	민속 6050
	채단(絲織)	한국(韓國)	.	.	혼례(婚禮)	사립/ 온양민속	온양민속 46
혼례상 (11)	봉치시루	한국(韓國)	합성수지	.	혼례(婚禮)/ 혼인서식(婚姻書式)	사립/ 온양민속	온양민속 50
	대례상 (大禮床)	한국(韓國)	합성수지	.	혼례(婚禮)	사립/ 온양민속	온양민속 53
	대례상	한국(韓國)/ 조선(朝鮮)	.	가로 91cm 세로 76cm 높이 76.5cm	혼례(婚禮)	학교/ 전주대	구입 896
	초와 촛대	한국(韓國)	금속(金屬)/ 동합금제(銅合金製)	길이 33.5cm/ 길이 50cm	혼례(婚禮)	사립/ 온양민속	온양민속 57
	사철나무와 대나무	한국(韓國)	토제(土製)	구멍지름 28cm 바닥지름 8cm 높이 26cm	혼례(婚禮)	사립/ 온양민속	온양민속 58
	담(혼례)	한국(韓國)	합성수지	.	혼례(婚禮)	사립/ 온양민속	온양민속 59
	대례상음식	한국(韓國)	합성수지	.	혼례(婚禮)	사립/ 온양민속	온양민속 60
	병풍	한국(韓國)	.	가로 35cm 세로 124cm	혼례(婚禮)	사립/ 온양민속	온양민속 78
	자리	한국(韓國)	나무/대나무	길이 430cm 너비 90cm	혼례(婚禮)	사립/ 온양민속	온양민속 79
	술상	한국(韓國)	합성수지	.	혼례(婚禮)	사립/ 온양민속	온양민속 64
	메백반차림	한국(韓國)	합성수지	.	혼례(婚禮)	사립/ 온양민속	온양민속 73